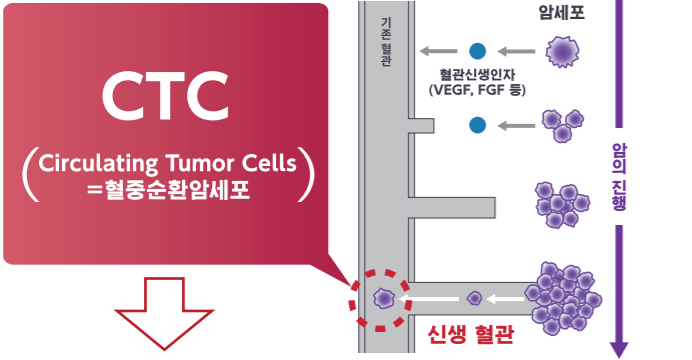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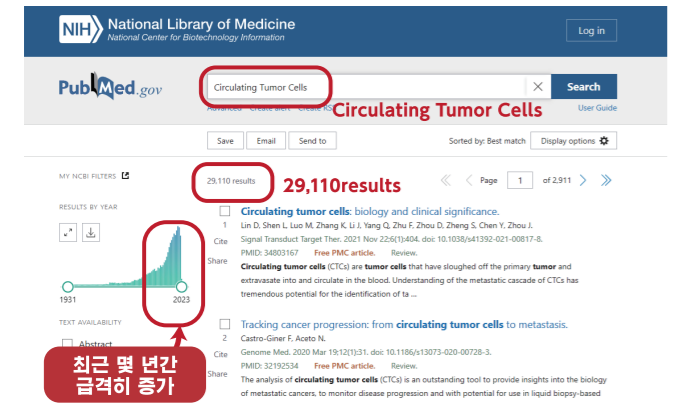
CTC 검사란?



CTC를 포착할 수 있는 첨단 검사인 CTC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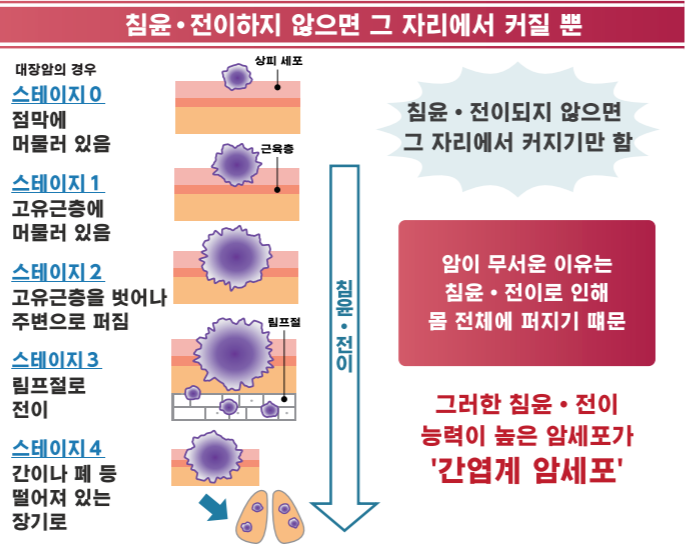
암세포는 1미리 정도의 크기가 되면 '신생혈관'을 만들어 혈관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신생 혈관을 통해 산소 및 영양분을 가로채 증식해 나갑니다. 이때 신생혈관을 통해 암세포가 혈중으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혈관 내에 유입된 CTC (혈중순환암세포)라고 하며, CTC 검사는 이러한 혈중 CTC를 포착할 수 있는 첨단 검사입니다.

전 세계 의학 논문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PubMed에서 CTC를 검색하면 전 세계에서 약 29,000개의 논문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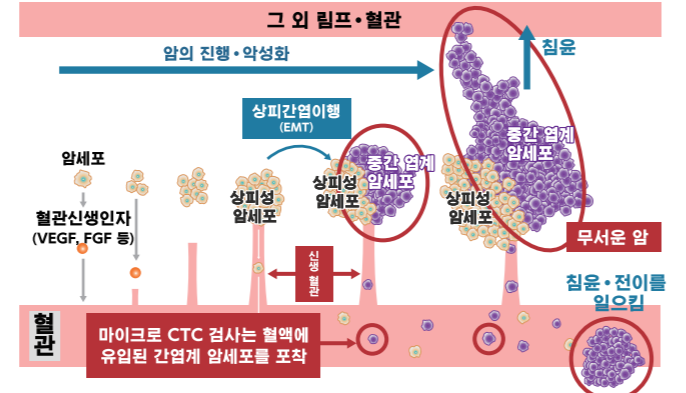
※마이크로 CTC 검사는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간엽계의 암세포란?



CTC 검사를 더욱 진화시킨 '마이크로 CTC 검사'

아래의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암이 진행, 악성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최초암은 악성도가 낮은 상피성 암세포만 있었으나 진행, 악성화해 가는 과정에서 상피간엽전환이 일어나 침윤·전이 능력이 높은 간엽계의 암세포로 형질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이크로 CTC 검사는 혈중에 유입된 간엽계 암세포만을 특정해 포착할 수 있으며 개수까지 명시함으로써 이제까지 진행된 암세포가 몸 어디에 있는지 특이도 94.45%라는 매우 높은 정밀도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CTC 검사의 결과에 대한 높은 납득성

혈액에 유입된 암세포 자체를 포착하여 개수까지 제시

높은 납득성

악성도가 높은 암세포만을 포착하고 그 수까지 명확하게 제시

상피간엽전환된 침윤·전이 능력이 높은 간엽계 암세포가 신체의 어딘가에 있다는 것

특이도 **94.45%**
(암이 아닌 사람이 음성으로 나오는 정확성)

일본 최초의 국내 검사 센터에서 실현하는 마이크로 CTC 검사 품질

셀 클라우드의 마이크로 CTC 검사는 일반용 CTC 검사로는 일본 국내 최초로 자사 검사 센터를 마련해 채혈 후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했습니다. 센터장은 전(前) 존텐도 대학 의학부 선임 준교수이자 악성종양 전문의인 오타 고시 박사가 맡고 있습니다.

채혈 후 신속한 검사 실시가 필수적

해외에서 검사 분석을 하는 경우: 혈액을 보내고 며칠 후에 도착

마이크로 CTC 검사: 채혈 후 바로 국내검사센터에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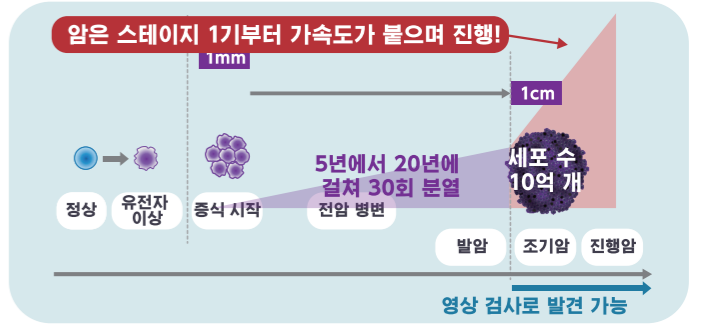
더 고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 가능

마이크로 CTC 검사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납득성 높은 전신암 검사를 간단하고 단시간에 받고 싶은 분

수 년 간 암 검사를 게을리하여 발견했을 때에는 진행암이 되는 케이스, 검사를 하고 있지 않았던 부위에서 암이 발견되어 치료가 늦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마이크로 CTC 검사라면 단 1회의 채혈만으로 전신 암 선별이 가능합니다.

반년이나 1년 만에 스테이지 2기나 스테이지 3기로 진행되는 암도 드물지 않음
⇒안전하게 발견할 수 있는 기간이 실은 매우 짧음!!



2. 암 재발이 걱정되는 분

CTC 검사가 암 재발 조기 발견에도 유효하다는 내용이 미국의 'MD 앤더슨 암 센터'의 연구 논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① 치료 전 영상에서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CTC 검사 결과 또한 양성이 양성.

② 치료 종료 후 영상에서 암이 깨끗이 사라졌을 때 CTC 검사 결과는 음성.

③ 치료 종료 6개월 후 영상에서는 암의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CTC 검사 결과는 양성.

④ CTC 양성 6개월 후 그러자 6개월 후 영상에서도 암의 재발 확인.